

“호남권 도로·철도·공항·항만 기반시설 10년 내 갖춰야”

**2022년 대선의 해
신 균형발전 원년으로**

광주일보·광주전남연구원 공동기획

<2> 호남고속철도 해남 땅끝까지

호남고속철도를 해남 땅끝까지 연결하고, 경전선의 전남 구간을 복선전철을 서둘러 준공해야 한다. 전북 군산과 목포를 연결하는 서해안 철도를 나아가며, 달빛내륙철도를 계기로 호남권 철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호남권 대도시 광주를 중심으로 전남 곳곳을 연결하며 타 지역으로 오가는 도로망도 새로이 정비해야 한다.

서울-충청-영남으로 이어지는 경부라인에서 제외된 호남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거의 모든

광주송정~순천 단선 비전철
영호남 차별 대표적 사례
국가재정 영남권 수준 투입
기반시설 갖춰 지역나후 탈피를

사회기반시설(SOC)이 수십년 늦게 설치되거나 낙후된 채 방치돼 있다. 사람과 물류의 이동을 촉진하는 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산업, 상업, 금융 등의 발달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 거주인구가 급감하면서 각종 선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아져 '변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역나후 후도 비중 상향 등의 조치가 이어졌지만, 일제강점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최근 20년만에 달빛내륙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됐고, 그토록 요구했던 광주-순천 경전선 전철화사업이 예타 재조사를 거쳐 간신히 통과했지만, SOC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등의 수준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호남권에 대한 국가 재정의 집중적인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제강점기 차별로 시작해 불균형 고착-광주 송정역에서 보성, 순천, 진주, 마산을 거쳐 경남 밀양 삼랑진을 잇는 경전선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연결하는 철도 교통망이다. 하지만 경전선 노선 중심 산업량지와 순천을 잇는 영남권역은 복선 전철화사업이 이미 완성됐거나 진행중이지만, 호남권역인 광주송정-순천은 일제 강점기 건설 이후 한 번도 개량되지 않은 단선 비전철 구간으로 남아 영호남 차별의 대표사례로 꼽혔다. 국토 서부권의 한축인 호남선은 동부권의 한축인 경부선보다 64년이 늦은 2003년에야 복선화가 이뤄졌고, 고속철도 역시 11년 늦게 개통됐다. 이는 호남권의 일부인 1단계(충북 오송-광주송정)를 말한 것으로, 2단계(광주송

정-목포)까지 하면 경부선보다 21년이 늦은 2025년에 가서야 준공될 예정이다. 경부선이 지나는데 전, 중작역인 부산은 도시 내 구간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호남선의 중작역인 목포는 여전히 고속철도가 계속도 다닐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격차의 시정은커녕 더 확대됐다는 의미다. 철도-도로만이 아니라 항만-항구도 마찬가지다. 호남은 서해와 남해와 접해 있어 지방어항, 소규모 항포구 등이 전국 비중의 절반에 달하지만, 방파제 부실 및 노후, 물양장-공동작업장 미흡 등으로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10년 내 기반시설 갖춰 지역 낙후 극복해야-호남권의 도로·철도·공항·항만 등을 신규 설치·개선하는데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었지만,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원인은 정부가 재공했다는 점은 철저히 무시됐다. 불균형 시정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양철수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열악한 호남권 SOC의 전면적인 쇄신없이 지역의 성장·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며 "정부로부터 가장 우선적으로 교통 기반의 혁신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 부문에서는 광주권 광역철도 부재, 고속철도 네트워크 미구축, 동서방향 내륙철도 부재, 서해안축 철도 미구축 등을, 도로 부문에서는 시설 전반의 미비 등을 공항 부문에서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기반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우선 시급한 현안으로는 철도 부문에서 서해안 철도(목포-군산), 전라선 고속철도, 광주-화순 광역철도, 도로 부문에서는 광주-고흥(나로우주센터) 고속도로, 영암-진도(진도항) 고속도로 연결, 광주-부산 고속도로 연결(창녕-부산), 광주대도시권 외곽순환도로(제3순환도로) 건설, 호남고속도로 광주 도심구간 확장, 여수-남해 해저터널, 공항 부문에서 무안국제공항의 서남권 거점공항 및 인접국제공항의 대체공항 역할을 위한 활주로 확장, CIQ(세관-출입국-검역) 정비, 광역 교통체계 구축, 흑산공항 조기 착공 등을 선정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포스코, 수소산업 육성 앞장 김영록 전남지사가 3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라남도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 세 번째부터) 포스코 김학동 철강본부 대표, 김영록 지사, 김경호 광양부시장.

전남도, 생활SOC 개선 지역개발 영암·강진 선정

국토부 공모 ... 국비 75억 확보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생활문화복합관 신축

전남도가 2021년 국토교통부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영암과 강진 2곳이 선정돼 국비 75억원을 확보했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주거, 생활SOC, 일자리를 연계한 주거플랫폼 조성으로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전국 143개소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전남은 34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선정 사업은 강진 '호계로 속(SOC) 행복 플랫폼 조성사업'과 영암 '신활력 기충전소, 확산 누리 플랫폼 조성사업'이다.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해 근로자와 주민을 위한 생활 SOC를 조성하는 계획을 신청해 선정됐다.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낙후지역의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 일자리를 함께 공급해 농산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균형발전 사업이다.

강진군은 주민건강-여가생활 공간 및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하고, 다양한 계층의 문화에 활용할 유구 충족을 위한 마을 공유 갤러리카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암군은 생활문화복합관을 신축해 아동돌봄시설, 고흥자 일자리 및 공공 문화센터를 제공하고, 20여 생활체육 동호회를 위한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인 만큼,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을 통해 조기에 사업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공모

공원·녹지·도시계획 14명
20일까지 신청 접수

광주시가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기존 도시공원위원회의 임기가 9월 14일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대상은 위촉직 위원 14명으로, 지원자격은 공원·녹지·산림·도시계획·경관·도시생태·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면 된다. 단 도시공원위원회 2회 연임자 및 시 산하 위원회 중복(3개) 위촉된 자는 위촉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위촉된 위원은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도시공원위원회에 소속돼 활동하게 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공원녹지분야의 자문 및 심의를 수행한다.

참여 희망자는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해 20일까지 관련 서류를 시 공원녹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광주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9층 공원녹지과), 이메일(his8367@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원녹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중호 광주시 공원녹지과장은 "도시공원은 도시민에게 힐링과 치유의 공간이 되는 중요한 공간인 만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광주시 공원녹지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목포·진도 택시 1600여대 국제수목비엔날레 명예홍보대사로

목포와 진도의 택시업체가 오는 9월 1일 개막하는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홍보에 나선다.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사무국은 행사 30일을 앞두고 주 전지역인 목포와 진도의 택시업체 대표 14명을 '202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택시운수 종사자는 도민과 가장 가까워서 접촉하고 관광객 등이 처음으로 만나는 분들로 홍보 효과가 매우 높아 이들을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에 따라 목포와 진도의 개인 및 법인 소속 택시 총 1600여 대가 수목비엔날레 홍보에 동참한다.

이들은 수목비엔날레 개최 기간인 10월 31일까지 홍보용 마스크를 쓰고, 차량에 홍보스티커를 부착하며 홍보전단 등을 비치해 탑승객에게 수목비엔날레를 적극 알릴 방침이다.

김영신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코로나19로 택시업체도 승객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데도 수목비엔날레 명예홍보대사로 적극 나서줘 감사하다"며 "택시운수종사자는 최일선에서 도민과 관광객 등을 상대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차 안 홍보는 수목비엔날레가 전남 대표 행사로 자리잡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오채찬란 모노크롬-생동하는 수목의 새로운 출발'이란 주제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목포 문화예술회관과 진도 운림산방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는 광양, 여수, 구례, 강진 등 11개 시군과 광주시까지 함께하는 특별전과 시군 기념전도 같이 열려 남도 전역이 수목의 향기로 물들 예정이

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의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